

공동체 소식

예수 성심 성월 안내

예수 성심 신심의 목적은 한마디로 인간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예수 성심과 함께 또 예수 성심을 통해 사랑으로 보답함으로써 첫째 계명(신명 6,5; 마태 22,37-38; 마르 12,29-30; 루가 10,27)을 더욱 효과적이고 온전하게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성심 신심은 단순히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중거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 목숨까지 바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예수 성심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응답은 **사랑의 실천이요 사랑의 보답**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 동안 매일미사 3쪽 "예수 성심 성월 기도"를 매미사 전과 가정에서 바칩니다.

복사단 모임

- 16일(일) 미사와 식사 후

주일학교 교리 방학

8월까지 방학합니다. 개학은 추후 공지합니다.

평협회 안내

- 30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6월 구역모임 안내

4구역 - 29일(토) 오후 7시, 차상욱 펠릭스 가정
15334 Riley st, Overland Park, KS 66223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매월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아,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섭 요셉, 김동술 세례자요한, 감영진 라파엘, 이우석 프란치스코, 천주영 에스델 (27가정)

전례 성가

	입당	예물	성체	파견
금 주	81	512	178	31
차 주	163	221	506	200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시연(엘리사벳)	김병철(베네딕도) 김경희(스콜라스티카)
차 주	박태주(로마노)	고영방(스테파노) 김명은(안젤라)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차민서(임마누엘)	정예진(하나) 김정빈(바오로)
차 주	정예찬(미카엘)	김정원(안젤라) 김지안(요한)

헌금 봉사자

금 주	감영진(라파엘), 조진환(베드로)
차 주	홍순익(마르티노), 김동술(요한)

애찬 봉사자

금 주	8조: 김명은, 한춘희, 최선윤
차 주	9조: 김시연, 김명희, 윤지선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매 미사 후 뒷정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1코린 16,14-

2019년 6월 16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www.kckcatholic.org
korean1481@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미사를 시작하며 사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고 인사합니다. 은총과 사랑과 친교의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미사에 참여합니다.

그림 묵상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요한 16, 12-14

제 1 독서 : 잠언의 말씀입니다. 8,22-31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지혜는 태어났다.>



-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빛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 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
-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1-5

<우리는 성령께서 부어 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갑니다.>

- 복음환호송 :
-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 알렐루야.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2-15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생명의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습니다. 하느님과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실하지 못했고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믿는 이들이 다시 바른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고 끊임없이 그들과 화해하는 분이십니다. 구약성경에서 자비와 화해는 하느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창조하시고 함께 길을 걸으며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라는 호소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더욱 잘 드러납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되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제 하느님은 백성의 대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1요한 1,1 참조). 인간의 나약함 역시 그대로 지닌 하느님은 길에서 벗어난 인간을 위해 아무도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구원의 정점이자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합니다(요한 14,26 참조). 성령은 교회 안에서, 믿는 이들 안에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지속해 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중에 가장 으뜸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1요한 4,8)

우리는 이런 하느님을 삼위일체로 표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표

현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업적과 역할은 다르게 보이지만 서로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역사이고, 이것을 이루는 것 역시 한 분이신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창조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강림을 통해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와 다양한 사건들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끝나지 않은 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사랑의 잘못된 발전

- :사랑이 깊어갈수록
1.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많아짐.
 2. 상대방에게 내 의미가 더 커지길 바람.

사랑의 올바른 발전

- :사랑이 깊어질수록
1. 상대방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아짐.
 2. 상대방이 내게 더 커다란 의미로 다가옴.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요한 16,15)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이끄심

익숙하고 밋밋했던 것도 그 배경과 의미를 알게 되면 깊은 감동이 되어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표기법의 기원은 귀도 다레조(Guido d' Arezzo, c990~1050)에 의해 확립되었고, 각 음계의 이름은 세레자 요한 탄생 축일 저녁기도 가사 첫머리의 단어들의 약자로서, “하느님을 찬양하며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하느님의 구원을 선포한다”라는 뜻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앙인인 저에게도 음악은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미사 시간에 성가를 가장 크게 부르던 소년이었습니다. 성가를 부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느껴졌고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청년이 되고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전국을 다니며 봉사를 통해 신자들과 성가의 기쁨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이 있는 곳엔 사탄의 방해가 있고, 인간이 하는 일하기에 오해에서 비롯된 모함과 시기 질투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견디기 힘든 시련의 고통은, 10여 년의 시간 동안 겪은 생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냥 포기할까?” 아님 “다른 일을 해볼까?” 하는 갈등과 유혹도 있었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성가를 통해 하느님의 강한 부르심을 느꼈고, 그때 주셨던 “실로 황금은 불 속에서 단련되고 사람은 굴욕의 화덕에서 단련되어 하느님을 기쁘게 한다”(공동번역성서 집회 2,5)는 집회서의 말씀에서 큰 감동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 동안 스스로를 단련시키다 보니, 많은 성가를 작곡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들이 여러 성가제의 수상과 많은 음반을 만들 수 있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23년의 시간 동안 생활 성가 가수, 작곡가, 교회음악기관의 직무자로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셨고, 시련을 통해 단단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익숙함이 지속되다 보면 안주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저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어주시는 자비의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댈 수 있음에 위안을 받습니다.

코헬렛 3장 11절을 보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라는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하느님께서 그때를 마련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필리 4,6)

임두빈 안드레아 | 생활성가 가수

복음묵상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요한 16.14)

캘리그래피
김윤희 안드레아